

2023. 03. 20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19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

주 택 정 책 과 장	공병업	2133-7010
세대통합주택팀장	강윤희	2133-7023
담 당 자	황지성	2133-7038
관 련 누리 집	housing.seoul.go.kr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4쪽

## 어르신·대학생 주거공유 '한지붕세대공감' 관심 증가.. 참여자 모집

- 서울시, '어르신' 남는 방 공유·'대학생' 저렴한 월세 <한지붕세대공감> 상시 모집
- 1실 최대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 비용 지원... 올들어 계약건수·문의 대폭 늘어
- 연구결과, '한지붕세대공감' 경제적 효과 외 어르신·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 제공
- 시 "한지붕세대공감의 안정적인 운영·확대를 위해 사업 지속 보완 및 지원할 것"

#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학했던 김고운(22) 씨는 4학년이 되면서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학교 근처 자취를 알아보다가 '한지붕세대공감'을 알게 돼 2월 사당동 한 아파트에 입주했다. 최근 함께 사는 할머니와 가까워져 대화를 자주 나누는데 김 씨는 취업, 연애, 결혼 등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다. 졸업을 앞두고 불안하지만 할머니의 파스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 덕분에 늘 큰 용기를 얻고 있다. 지난주에는 새벽에 택시를 타고 나가 보셔야 하는 할머니께 택시 호출앱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는 등 두 사람은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'한지붕세대공감'에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다.

# 자녀가 출가한 뒤로 방 2칸을 6년 간 비워뒀던 이상엽 씨는 늘 적적했다. 지난해 이웃이 '한지붕세대공감'을 소개해 줘서 잠시 고민해 봤지만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다. 그러던 중에 조카가 서울로와 함께 지내게 됐는데 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불 켜진 집이 너무나 반갑게 느껴졌다. 이 씨는 조카가 나간 뒤 '한지붕세대공감'에 참여해 대학생과 함께 지낸 지 1년 정도 됐다. 학생과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지만 한 집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안정감이 커 이 씨는 앞으로도 '한지붕세대공감'에 계속 참여할 생각이다.

- 서울시는 주택 내 남는 방을 소유한 어르신이 대학생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'한지붕세대공감'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과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, 참여 희망자는 각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.

□ ‘한지붕세대공감’ 사업은 서울 시내에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과 대학생  
을 연결,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은 남  
는 방을 활용해 소액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주거 공유 사업이다.

○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은 대학생의 경우 보증금·관리비가 없고, 임  
대료도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이어서 주거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  
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며

○ 어르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수입, 주택 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
등 혜택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 등을 얻을 수 있어 선호도가  
높다.

- 사업대상 :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(60세 이상), 대학(원) 재학생 및 휴학생
- 지원사항 : 신청 시 1실 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(도배, 장판 교체 등) 공사
- 임 대 료 : 보증금 없는 월세(시세 50% 수준)
- 계약기간 : 6개월 ※ 어르신과 대학생의 상호 동의하에 계약연장 가능

□ 자택에 남는 방이 있는 어르신이 구청에 전화 신청하면 담당자가 주  
택을 방문, 간략한 인터뷰와 함께 주택 상태에 따라 벽지·장판 교  
체 등 1실 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 공사비용을 지원받게 된다.  
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도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원하는 지역·  
주거유형에 맞춰 주택을 중개받아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.

□ 올해 들어 서울 시내 ‘한지붕세대공감’ 계약만 총 34건으로, 코로나  
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작년 한 해 전체 계약건수(66건)에 비해  
사업 참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.

○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 여 간 대학가에 비대면 강의가  
보편화되면서 ‘한지붕세대공감’ 사업이 주춤했지만 최근 대면수업

이 다시 활성화되고, 주거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대학이 몰려 있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학생 문의가 늘고 있다.

- 올해 2월 사당2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입주해 어르신과 함께 살고 있는 대학생 김고운(22)씨는 “개인 공간이 보장되면서 기숙사·고시원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, 편의시설 등이 큰 장점”이라며 “또 보증금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부모 지원 없이 자력으로 독립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”고 말했다.

□ 실제로 작년 12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한 「세대교류형 주거실태와 정책과제」 연구에 따르면 ‘한지붕세대공감’ 사업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어르신과 대학생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.

- 조사 결과, 어르신은 학생과 함께 활동을 함께하지는 않더라도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감을 느꼈으며, 대학생 또한 부모와 떨어져 독립하면서 느낄 수 있는 ‘외로움’, 안전에 대한 ‘불안감’ 등이 줄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“어르신과 대학생이 주거공간을 공유하면서 얻는 경제적·심리적 안정 덕분에 ‘한지붕세대공감’ 사업이 큰 호응과 공감을 얻고 있다”며 “앞으로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, 확대해 나가기 위해 사업을 지속 보완 및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[붙임 1]

## 자치구별 한지붕세대공감 사업부서

연번	자치구	담당 부서	연락처
1	강남구	사회보장과 자활주거팀	02-3423-5873
2	강서구	주택과 주택관리팀	02-2600-6824
3	관악구	주택과 재개발팀	02-879-6305
4	광진구	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	02-450-7150
5	구로구	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	02-860-3360
6	금천구	복지지원과 자활주거팀	02-2627-1983
7	노원구	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	02-2116-3663
8	도봉구	주택과 임대주택관리팀	02-2091-3515
9	동대문구	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	02-2127-4045
10	동작구	장애인사회보장과 자활주거팀	02-820-1775
11	마포구	주택상생과 재건축지원팀	02-3153-9328
12	서대문구	인생케어과 복지지원팀	02-330-3832
13	서초구	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	02-2155-6659
14	성동구	주거정비과 주거정비관리팀	02-2286-6576
15	성북구	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	02-2241-2705
16	양천구	주택과 주거복지팀	02-2620-3465
17	용산구	주택과 주택행정팀	02-2199-7344
18	은평구	어르신복지과 어르신요양팀	02-351-7181
19	종로구	어르신가족과 어르신지원팀	02-2148-2208
20	중구	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	02-3396-5394
21	종랑구	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	02-2094-1709